

교회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용방안 연구
: 치유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희경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Heekyung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GLOBAL CITIZEN EDUCATION THROUGH EXPANDING CHURCH'S PUBLICITY : A CASE STUDY OF HEALING CHURCH

Heekyung Kim

Healing Church, Seoul, Korea

The Korean church is in need of renewal amidst major and small crises. If the reason for the crisis is completely from the outside, it may not be a big problem, but if it comes from the damage to the complete gospel from within, proper introspection, inspection and recovery of the mistakes made are required.

The role of the public sphere has been shown to be missing among the elements that the Korean church should essentially pursue. This is evidenced by the decline in trust in Christianity that has continued for over 10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nd their image as exclusive and duplicitous. And the results are now coming back to us as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s actually missing and requested: a public role.

Where should we start and how should we approach this public role? Contributing to publicness and participating in public roles requires more than simply the church doing something good outside the church. This is because there has been no social participation or social service by the church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the world's perception,

Protestantism was never perceived as having less social service than other religion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volunteer work did not serve as an improvement in trustworthiness as a factor in looking at Protestantism and the Korean church in a positive light. When I looked into why this was the case, I found out that the Korean church's volunteer work was seen as a narrow-minded service that they prepared, carried out, and finished on their own without the purpose of missionary work or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Therefore, the church's public participation must include openness,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lements of publicness. It is not important what you do, but the process of doing something must include a process of communicating and reaching agreement with the world and asking them what the region and society need in order to be a good deed toward a world that truly functions publicly. Because there is.

In this process, the framework for public participation that is required of the times and is consistent with the essence of biblical gospel spreading and neighborly love is establishing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aims for a character that pursues global and universal values, including concerns about problems that the world must solve together in keeping with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public sector participation in the recovery of the Korean church and emphasizes the suitability of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its practical methods. An analysis of how the themes and valu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ill explain that this practical framework can be a good tool and model for the church to fulfill its public role.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Korean churches where there are not many existing cas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nducted within churches, the results of the experience, evaluation, and

participants' impressions of the practice of Christi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nducted at Healing Church in Hwagok-dong show the public nature of the church through these tools. We hope that it will serve as an outlook on what positive meaning this approach can have.

국문초록

교회의 공공성 확장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용방안 연구

: 치유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김희경

서울,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 갱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 위기의 이유가 철저히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부터 기인한 온전한 복음의 훼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성찰과 함께 잘 못 걸

왔던 부분에 대한 점검과 회복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요소 가운데 공적영역에 대한 역할이 누락된 모습을 비춰왔다. 그러한 모습은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10여 년이 넘게 지속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이나, 배타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그들의 이미지 속에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실질적으로 누락되고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질문에도 공공적 역할이라는 직접적인 답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 공적 역할에 대한 접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공공성에 기여하고 공적 역할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교회 밖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행한다는 차원의 것 이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의 사회참여나 사회봉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인식에 따르면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봉사가 결코 적다고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봉사활동이 개신교를,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로 신뢰도의 향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한국교회의 봉사활동은 포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세상과 소통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편협한 봉사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참여는 공공성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공개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을 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행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합의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진정으로 공적으로 기능하는 세상을 향한 선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며 성경적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의 본질과도 부합하는 공적참여의 틀이 세계시민성 갖추기이다. 세계시민성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포함된 지구적이고 전우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성을 지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공적영역 참여를 회복을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적 방법에 있어 기독교적 세계시민교육의 적합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가치가 가지는 시대적 요구의 부합에 대한 분석은 이 실천적 틀이 교회의 공적 역할 감당의 좋은 도구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세계시민교육의 기존 사례가 많지 않은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행해진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의 경험과 평가, 참가자의 소감 등의 결과는 이러한 도구를 통

한 교회의 공공성 접근이 어떤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목차

감사의 글	xiii
표 목차	xi
그림 목차	xii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의 방법	8
II. 세계시민성의 이해	10
A. 세계시민성의 필요	10
B. 세계시민성의 특성과 주요가치	11
1. 개방적 민족주의·애국주의 지향	11
2. 인간의 권리개념과 범주의 확장	12
3. 지구적 정의와 평화 모색	14
C.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15
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15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16
3. 세계시민교육의 등장과 동향	18
4.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19
1)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현황	19
2) 한국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현황	21
III. 세계시민성과 기독교	24
A. 기독교의 핵심가치와 세계시민성의 연결점	24

1.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24
2.	이웃사랑의 원칙	29
B.	기독교의 시대적 과제와 세계시민성의 연결점	34
1.	교회의 회복으로서 공공성 회복	34
1)	그리스도인 정체성 완성으로서의 공공성.....	36
2)	사회의 책임성 실천의 관점으로서의 공공성.....	38
2.	공공성 회복으로서의 세계시민성 지향하기의 적합성	43
IV.	세계시민교육 활용사례	49
A.	기독교 세계시민교육 개요(치유하는교회)	49
1.	개요	49
2.	중점사안	50
3.	수업과 교재의 구성	52
B.	평가	53
1.	참가자의 평가	53
2.	필자의 평가	61
1)	긍정적 요소.....	61
2)	부정적 요소.....	63
3)	상황의 한계.....	64
4)	보완할 지점.....	64
V.	결론	67
A.	요약	67
B.	결론	68
	참고문헌	71
	부록	74

표 목차

<표1>	16
<표2>	17

그림 목차

<그림1>	74
<그림2>	75
<그림3>	76
<그림4-1>	77
<그림4-2>	78
<그림5>	79
<그림6>	80
<그림7>	81
<그림8>	82

감사의 글

먼저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토록 부족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수년 간 학문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르침과 더불어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영래 교수님, 조병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을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행정적인 도움으로 불편함 없이 모든 과정에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민경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섬기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한경국 목사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거두어 주시고 목회적 틀 안에서 섬김과 희생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쁜 목회사역을 할 때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배려하셨던 동역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음을 항상 느끼게 하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 성도님들 한분 한분에게도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평생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회와 학문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시고 손주들을 돌봐주시면서 기꺼이 자식위해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장성한 나이임에도 많은 빛을 입었습니다. 자주 안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위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시며 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돌보아 주시며 큰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으신 장

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논문에 집중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일 마지막 차례로 가족을 생각하는 부족함을 받아주고 견뎌주었던 아내 백수경 사모의 사랑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합니다. 본 결과물의 팔 할은 그 희생의 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세 딸 하린, 하연, 하진의 조건 없는 아빠를 향한 그 사랑에도 많은 빛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은혜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김희경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교회위기

한국교회의 위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5%에 달한다고 말했고 이 비율은 2012년 22.5%, 2017년 20.3%에 이어 5년 동안 5%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 라고 말한다.¹ 장동민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과 함께 교회도 소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내기도 했다.² 양적인 수치와 함께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는 지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위기 지표이다.

세상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 내부의 대응과 해석의 방식은 다양하다.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기독교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기독교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이 비관적 시각의 원인이라며 자정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명한 이 시대의 과제처럼

¹ “교회 위기?...대면예배 회복됐지만 교인은 계속 감소”, NEWSIS, <<https://www.newsis.com/>, (2024.2.20 확인)>

² “시운의소리-부흥의 추억”, 국민일보, 2023.6.23., <www.kmib.co.kr, (2024,2,20 확인)>

여겨진다. 과연 이 위기는 무엇으로 넘어서야 할 것인가? 그동안 과연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해왔는가? 혹 그 과정에 우리가 놓친 것의 결과로 이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공성의 회복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하 기윤실) 단체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는 카톨릭(30%) 불교(26.2%)에 이어 18.9% 수치로 세 번째에 위치했다. 반면 ‘어느 종교가 사회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가톨릭(32.9%), 불교(10.2%)보다 앞선 35.7%의 수치를 보였다.³ 물론 설문에 응한 대상 중 20%에 해당하는 자들이 개신교도들임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이 순위는 기윤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조사해 온 결과 순위 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이 일관된 내용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신교의 한국 사회 속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든 양적인 면에 있어 적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크고 작은 한국사회의 위기의 자리, 구제와 복지가 필요한 자리마다 개신교는 곳곳에 찾아가고 자리 잡으며 봉사의 자리를 감당해 왔음이 수치로도 확인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중요하다. 위 설문결과와 내용을 바라볼 때, 개신교의 그런 사회봉사활동의 유무, 혹은 많고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신교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분명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고귀한 행위인데 왜 그 행위를 가

³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세미나, (서울:(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20

장 많이 행했다고 인식되면서도 왜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며 좋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는 개신교에서 행해왔던 사회봉사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그들이 행하는 사회봉사가 그들을 신뢰할 만한 요소로 작용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신뢰는 그들이 얼마나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가가 투명하게 보일 때 쌓여 갈 수 있다. 단순 시혜적 차원의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라 시민 사회적 역할, 공공성 향상에 얼마나 기능하는가 하는 지점이 아마 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도라는 점이 전제된 공헌활동은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땐 신앙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교회 밖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행위로 읽히게 된다. 순수하지 않아 보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자신들의 종교의 내용을 집단 사사화 함으로서 공적영역에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사회 봉사 활동은 많을지 몰라도 공공성 활동에 있어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안에 공공성을 회복하는 역할에 기능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놓쳐왔던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 영역에 있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전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공적 연관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⁴ 우리의 신앙함의 온전함은 교

⁴ 이 ‘연관성’의 의미를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그의 책에서 부제로 ‘신학의 공적인 연관성(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을 언급하면서 그는 기독교 신학을 ‘공공신학’이라고 하였다. 공공신학은 사회 안에 공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다.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253.

회 안 실천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사회 안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완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학의 변화와 실천적 안내

교회는 성경을 지침서로 삼는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신학에 반영이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적 배경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왜곡되고 편향된 집중과 해석이 건강하지 못한 신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경 속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해석의 결과물이 언제나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 지향하고 따라왔던 신학은 시대에 부응하기도 하며 교회의 성장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살펴보면 근 20년간 한국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 학자는 근대사회 문제가 되어온 한국 신학의 맹점 가운데 하나로 세상과 교회가 심각하게 동화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70-80년대 한국교회는 중앙집권적으로 산업발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개발독재 시스템을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삼았고, 90년대 들어 ‘포스트포드주의’라 불리는 기업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은 모델을 따르며 비전, 리더십, 성공담론을 기독교식으로 담아냈다고 말한다.⁵

그런데 이러한 모델의 결과가 어떠한가? 70-80년대의 모델은 돈, 섹스, 권력과 관련된 부패, 노골적 반공주의적 활동 공격적 선교의 모습, 교회 세습 등으로 얼룩진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90년 모델은 사랑의 교회 사태, 삼일교회 사

⁵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새물결플러스, 2017, 29.

태, 또는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공공적 이슈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등으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수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장주의에 물들어 기업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상응하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내용과 방식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신학을 제공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구원과 복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성경의 가치를 축소시킨 잘못된 신학이 가져온 결과요 그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가르치고 강화해 온 리더들의 잘못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출발점은 지금의 부작용을 낳게 된 잘못된 철학의 수정, 곧 바른 신학의 정립과 전파에 있어야 한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는 공적 진리로서의 신학을 주창했는데, 성경이 공공의 영역에서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사실로서의 내용으로 보았다.⁶ 성경의 핵심은 개인의 믿음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총체적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적용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공공의 진리라는 것이다. 공적신학의 특징은 종교공동체를 넘어 더 넓은 사회를 포괄하는 문제, 공적문제에 대한 신학담론을 추구하고,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보편성을 지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의 핵심이 개인과 종교내부를 지향함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예수가 이야기한 이웃사랑의 이웃은 같은 신앙을 공유한 자들만이 아닌, 울타리 밖에 위치한 지역과 사회의 자유와 정의회복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학 이러한 내용의 교육이 교회 내적으로 생산 확장되도록 해야 한

⁶ 앞의 책 , 212

다. 그들의 개인 지향적 종교관과 세계관에 질문을 던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에서 그들의 시민사회 적 당위성을 길러내야 한다. 그래야 공공성에 기여하게 되는 내적 힘이 구성원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적합한 신학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좇아오기 쉽도록 실천적 안내의 장이 함께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하늘의 가치를 설명하시곤 이웃이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돕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실천적 안내를 제공하셨다. 이처럼 급박한 한국교회 위기의 상황 속에 형이상학적인 공공신학의 전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을 넘어서고 시대성을 반영하는 실천적 접근: 세계시민성 갖추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의 실천적 영역으로 세계시민성 지향하기를 선택하려고 한다. 세계화 이후 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전은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말, 지구촌이라는 말을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지금이 되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 다루어지는 공공성에 회복에 대한 노력과 접근은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될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기후변동,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훼손, 경제 불평등, 제 3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 그리고 정치·종교적 갈등과 분쟁 등은 이미 개별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없이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인류 모두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⁷ 우리가 오늘날 겪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문제들은 세계를 지향해야 함이 필수적이며 시급하기까지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성 회복의 실천영역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교회 안에서 성경적 해석을 통해 나누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졌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 곧 우리가 지구마을의 한 일원으로 이웃의 개념을 지역과 세계민족을 향해 확장시켜 지구촌이 당면한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가르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참여, 가치를 육성하고자 하는 틀이다.⁸ 성경적 의미에서 왜 기후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빈곤과 기아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성해 가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공공성회복에 기인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공공성 회복에 이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과 그 실천적 영역으로서의 지역사회지향, 마을 만들기 운동을 포괄하면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고 그 교육과 크고 작은 실천사항들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한 개인이 공공성 회복에 기인하는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것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⁷ 이승연,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국제개발협력(3), 41.

⁸ 현은자의 6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서울: 학지사, 2013), 23.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팎에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으로 우선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룰 것이다. 그리고 세계시민성이 어떻게 기독교의 가르침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2장에서는 세계시민성을 갖추는 일이 왜 필요하며 어떤 개념과 주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어 세계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적인 영역으로 교육적 틀로 담아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소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와 한국사회속의 세계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에 세계시민성이 얼마나 시대에 부응하는 운동성을 가진 교육의 틀인지를 확인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세계시민성과 기독교와의 연결성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성경 속 가치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세계시민성 갖추기의 당위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다. 그 후 세계시민성을 갖추는 일이 어떻게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 세계시민성에 대한 접근이 교회의 공공성 확장과 회복에 기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4장에서는 화곡동 치유하는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3월~5월 사이 실시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배웠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어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전체 연구의 종합적인 요약과 결론을 내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교회 안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가져오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긍정적 가능성이 증명될 것이다.

II. 세계시민성의 이해

A. 세계시민성의 필요

강남순은 전세계가 코로나를 경험한 뒤 더불어 살아갈 필요성이 더욱 견고해진 상황에 상황과 함께함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⁹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COVID 19)의 사태는 우리를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적 위기를 통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외딴섬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세계가 겪는 다양한 위기가 나와 상관없는 ‘저곳’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살아감이란 결국 함께 살아감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더욱 가까워진 온 세계를 일컬어 표현키를 ‘지구촌이 되었다’, ‘지구가 작아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한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표현들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예측하는 의미가 아닌 현실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 많은 위기들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어나가는 문제가 되었고 그렇기에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들이 되었다. 세계와 지역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고 이곳과 저곳을 경계지어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는 코로나 사태처럼

⁹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녘, 2022), 21.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위협한다. 생물의 멸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위협을 가져왔고 행동양식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는 보건상황에 취약한 자들에겐 생명의 위협으로 가난한 자들에겐 더욱 그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었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특정한 국가에 속한 개인으로서만 살아갈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로 보고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세계시민’ 의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¹⁰

‘세계시민주의’로 번역되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그리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로부터 기원했다.¹¹ 그리고 이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시민주의, 곧 세계시민성의 지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구 위 도처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존재적으로 평등하다는 의식을 확산하려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평등하기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과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에 위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평안함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지역의 누군가와 같이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온 지구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라는 인식의 확장 속에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B. 세계시민성의 특성과 주요가치

1. 개방적 민족주의·애국주의 지향

세계시민성은 맹목적 애국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민족주의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자기 국가 이득에만 집착하고 ‘지구 공동체’의 이득과 앞 날을 고려하지 않는 가치를 비판한다.

¹⁰ 현은자의 6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23.

¹¹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3.

¹²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27.

이상욱 작가의 ‘밀어내라’ 라는 동화책은 조그만 얼음 섬에 있는 펭귄무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음 섬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곳에서부터 훨씬 작은 얼음섬을 타고 흘러오는 북극곰이나 물개, 출생이 다른 펭귄들을 집단적으로 작대기를 사용해 밀어낸다. 얼음이 녹고 먹을 것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새끼를 안전하다 여기는 반대편에 몰아넣고 다른 반대편에서 온 집단이 흘러들어오는 다른 동물들을 밀어내는 사이 어른 펭귄들의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얼음이 갈라지게 된다. 그 갈라진 얼음위에 있던 아이 펭귄들은 얼음 섬에서 떨어져 나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아이 펭귄들은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밀어내는 데 정신이 팔려 떠나려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며 그림책은 쓸쓸하게 마무리 되고 있다.¹³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한 무언가를 지키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배척의 행위가 가진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그림책은 담고 있다.

세계시민성의 중요가치 중 하나는 그래서 ‘개방적 민족주의’ 이다. 우리의 개념을 확장하고 함께 살아감의 의미를 적용시키며 나아갈 때 지구촌 모두가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2. 인간의 권리개념과 범주의 확장

인간의 권위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 권리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 또는 개인이 가난한 나라나 개인을 도우면서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책임과

¹³ 이상욱, 밀어내라, (서울: 한솔수북, 2019)

의무를 저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책임을 이행하는 쪽에서 시혜적 태도로 그 도움을 베풀었을 때,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쪽과 도움을 받은 쪽 사이에는 위계적인 구조가 생기게 된다. 물질이 있거나 여건이 더 풍족해서 도움을 준 쪽에서는 사회적 위계가 그 도움을 받은 쪽에 비해 더 우월하게 높여지게 되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 여부가 국가 간 개인 간 서열화의 중요 조건으로 부각되며 결국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모습이 형성되게 된다.¹⁴

“어젯밤 당신이 150불을 주고 샀을지도 모르는 나이키 신발을 만든 사람이 12살 난 파키스탄 어린이이며, 그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은 2달러에 불과하다.” 1996년에 미국 월간지 ‘라이프’가 불공정거래를 고발하자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공정무역(Fair trade), 착한 소비운동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던 적이 있다.¹⁵ 국가 간에 부의 차이가 가져오는 인권의 고저의 차이가 이처럼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은 국가 간 물질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두가 한 공동체, 가족이라는 확장된 범주로 바라보는 것이다. ‘가족’ 이기에 시혜자와 수급자의 위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권리의 범주의 확장을 가져가는 것. 그리하여 인권의 위계를 없애고 평등한 개개인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시민성에 있어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3. 지구적 정의와 평화 지향

¹⁴ 강남순, 코스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97

¹⁵ 박성수, “공정무역거리”, 경향신문 2009.11.1. <<https://v.daum.net/v/20091101180617764> (2024, 2, 20 확인)>

지구적 정의는 이 세계의 다양한 재난들, 즉 극심한 빈곤이나 질병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¹⁶ 정의가 행사되는 범주가 차별 없이 지구위에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향유하는 자연환경 물적자원들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산사회정의를 위한 지구적 연대성 확산이 요청된다고 보는 가치이다.

이 세계의 진정한 영구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한 사람 또는 한 국가가 국적이나 종교 등이 다른 타자들을 포용하는 것이다.¹⁷ 칸트가 강조하는 이 영구적 평화의 개념은 여러 국가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상황 속에서 인류가 지켜가야 할 매우 절실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성은 분쟁과 폭력 등이 난무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동료라는 의식이 확산될 때 이러한 다름이 종식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세계시민성은 이처럼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지구적 공동체를 추구한다. 다만 여기서의 공동체는 동질성이 전제된 의미가 아니다. 혈연적이고 지연적 의미로 사용되던 공동체의 표현이 오히려 확장되어 다름의 공동체의 성격이 특징인 것이다.¹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동질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닌 다름을 포용할 수 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바가 중요한 지점이다. 동질성의 공동체는 언제나 우리와 그들 간의 구분 선을 두지만 다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설정하는 ‘우리’ 라는 개념을 전 지구적이라는 지향으로 확장함을 통해 온 지구가 하나 됨의 가치를 중요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¹⁶ 위의책, 97

¹⁷ 위의책, 98

¹⁸ 위의책, 99

C.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인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계시민이란 개인, 지역, 국가적 경계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나오는 다른 문화나 인종,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 속에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세계시민성은 이러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적인 시민적 의식과 책임감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국경을 넘어가는 타 국가 민족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능력과 가치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⁰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학자 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대체로 상호의존성, 문화 간 이해,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¹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 구성요소에 관해 최미란은 지

¹⁹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교육-초중고생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 (서울: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²⁰ 현은자의 6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23.

²¹ 위의책, 26.

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실천과 행동의 부분의 각 요소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도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요소²²

요소	내용
지식과 이해	- 지구촌의 현실과 글로벌 이웃들의 삶에 관한 지식 - 지구촌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 -다문화, 환경, 인권, 평화 등의 세계적 이슈에 관해
기능	-토의토론수업을 통한 지구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 접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능력 향상
가치와 태도	- 배움을 통한 지구마을 이웃들에 대한 공감력 향상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과 책임의식 증진
실천과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세계시민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은 지식적인 것 뿐 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지식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기능적 측면, 가치와 참여적인 측면이 골고루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도표와 같이 세부 내용에 관해 주장한다.

<표 2> 지식·기능·가치·참여 범주에 따른 구성요소²³

²² 최미란, *함께해서 즐거운 세계시민교육*, (서울:교육과학사, 2017), 22.

²³ 현은자의 6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29.

범주	구체적인 내용
지식	-개인, 지역, 국가정체성, 인권, 평화, 세계지리, 타문화 이해, 세계역사, 경제관계, 국제관계, 전쟁과 갈등, 테러리즘, 발전문제, 자원, 에너지, 난민, 종교, 인종 및 소수자, 정보화와 세계화, 환경과 인간, 환경문제, 생태계 문제
기능	정보의 수집·처리능력, 상호협력, 정보의 이해, 자료 해독 능력, 비판적 사고·검토, 갈등 해결 방법, 효과적인 주장, 문제해결 능력, 최선의 선택, 합리적 선택, 미래에 대한 계획과 추측
가치	보편성, 인간의 존엄성, 차별과 편견, 행복, 인류애, 다양성·상대성 인정, 개방성, 창의성, 상호협력, 공감과 배려, 생명의 소중함, 관용, 지속 가능성
참여	시민참여 활동, 실제 삶과의 관계맺기, 적극적인 참여, 차별과 편견없는 태도, 자발적인 태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 보존하려는 태도

종합하면 세계시민교육은 한 개인이 범지구적 존재로 살아가고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품 곧,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 간 이해,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지식적인 전달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능적인 측면, 가치와 참여의 부분들을 같이 함양 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교육의 구성과 진행 방식에 있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세계시민교육의 등장과 동향

전 세계적으로 규제 없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나라하게 적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등장과 함께 변화의 국면을 맞는다. 특별히 가장 큰 변화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모여, 전 세계에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공동의 결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²⁴ 이러한 공동의 결의로 유엔은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를 2015년 지속발전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²⁵ 채택하였다.²⁶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에 선정된 지속발전가능목표 SDG 4번 교육의 세부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2012년 설패한 세계교육 우선구상²⁷에서 지금은 세계시민을 양성할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SDG 4번과 7번에 포함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세상에 세계시민교육이 알려지고 확산되었다.²⁸

사실 세계시민교육의 뿌리를 찾는다면 서구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1945년 유엔 설립 이후의 근거를 볼 땐 1946년 유네스코의 창설 이후 유네스코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 이해에 대한 교육은 유네스코를 통해 다루어졌으며,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의 다듬어진 형태와 강조로 맥을 이어가게 된다.²⁹

4.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1)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현황

세계 각국 속에는 정부부처나 학교,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시

²⁴ 세계 대다수 국가가 관심을 두는 의제로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제를 글로벌의제라고 한다. 글로벌의제의 개념이 자리잡고 개념이 널리 인식된 것은 탈냉전이후 2000년 초반부터이다. 정우탁, 세계시민교육과 SDGs, (서울:주류성, 2022), 19.

²⁵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s://sdgs.un.org/>, (2024,2,20 확인)>

²⁶ 정우탁, 세계시민교육과 SDGs, 18.

²⁷ 세계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GEFI)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unesco.org/new/en/gefi/home>, (2024,2,20 확인)>

²⁸ 앞의 책 32.

²⁹ 앞의 책 32.

민교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정우택이 잘 정리한 세계시민교육의 현황을 인용하여 다루도록 한다.³⁰

-Bridge 47은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 전문 시민사회 단체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일하는 학자, NGO 활동가 등이 회원으로 있다.

-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된다. 유럽에서 Global Education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권, 평화와 갈등예방, 지속가능성, 세계시민교육을 다 포함하고 있다. 각국 정부부처, 개발원조 NGO등이 회원으로 있는데 현재 유럽 25개국의 50개 정부 산하단체와 해외원조기관 등이 가입해 있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다.

- University College of London(UCL)은 영국을 기반으로 오랜시간 세계시민교육을 선구적으로 가르쳐왔다. 학교 산하의 교육연구소인 개발교육연구센터가 GENE와 연합해 Global Education을 다루는 학자들의 연구모임인 ANGEL을 만들었다. ANGEL을 통해 학술대회나 연구서들을 계속해서 제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포르투갈 리스본의 North-South Center는 1990년부터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Klagenfurt) 대학교에서는 베르너 빈터스타인 교수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과정으로 개설하여 가르쳐오고 있다. 교사양성 전문가과정부터 NGO활동가들을 위한 2년 과정의 자격증, 3년 과정의 석사과정이 있다.

-OECD에서는 2018년 학생들의 세계문제에 대해 이해도를 측정하는 PISA 2018 Global

³⁰ 앞의 책, 160-165.

Competence를 측정했다.

-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의 페르난도 라이머 교수, UCLA의 카를로스 토레스 교수, 컬럼비아대의 Teachers College 등 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남미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 평화대학은 갈등과 평화, 국제법, 환경 및 생태 분야 등의 석, 박사과정을 운영한다.
- 아랍지역에서는 레바논의 Ady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활동을 아랍 전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오만은 정부부처 시민교육국과 술탄 카부스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앞장서서 소개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교육부와 필리핀사범대학교의 버트투가 총장이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고 캄보디아도 교육부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
- 동남아교육 장관기구(SEAMAEO) 사무국에서도 에텔 아그네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히 전파하고 있으며 몽골 교육부, 스리랑카 교육부에서도 세계시민교육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 일본은 문부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매진하고 있는데 초·중·고 시범학교 1개교씩을 지정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대 오카야마대학교에서는 2021년 SDGs 석사,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일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지구시민교육(地球市民教育)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 중국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각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는 중국관광객 문제로 인해 국제이해교육도 권장하며 가르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전구공민도덕교육(全球公民道德教育)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홍콩시위 등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한국사회의 세계시민교육

한국에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외교부와 교육부, 단체로서는 아태교육원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처음 소개되고 장려되었다.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의 교육청, 대구 수성구 등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활용, 전파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희대, 충남대, 서울교대 등의 대학교와 충남시민대학, 경북도민행복대학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속 세계시민교육 현황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정우탁이 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소개를 구성하였다.³¹

- 아태국제이해 교육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한국중앙선도교사 양성사업을 운영하며 일반교사들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교사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원 공간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연 10,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교육부와 외교부는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2015년) 시작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주요교육 의제로 설정한다는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 부산 금정구는 ‘세계시민교육의 수도’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추진해왔다. 2015-2018년까지 세계시민교육 지자체공무원 연수도 실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관심과 실행이 사그라들었다.
- 대구 수성시는 2010년부터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보여왔고 2017년부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을 개설, 교사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중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은 2019년 9월 세계시민교육

³¹ 앞의 책, 166.

국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UNITAR 제주 국제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제주도 공무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 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의 편차가 큰 편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시민보급을 위해 특별지원학교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2017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여명 학교장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2020년부터 동아시아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해 인천의 특색을 가미한 독특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경희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이영준 학장, 김민철 교수, 김윤철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시민교육을 펼쳐왔고 2018년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후마니타스 칼리지 명예학장으로 영입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충남대의 사범대 교육학과는 박환보 교수가 주축이 되어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과정으로 세계시민교육론과 세계시민교육전공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Ⅲ. 세계시민성과 기독교

A. 기독교의 핵심가치와 세계시민성의 연결점

1.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세계시민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권이다. 다만 세계시민적 속성 속에는 그 인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 중요한데 바로 나의 인간됨이 소중하다는 인식과 생각을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들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모두의 힘으로 보호를 받아 나가야 한다는 정신적 기초가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답할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중심으로 인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인권 선언을 만들 때 가장 많은 논쟁과 고민이 오고갔던 조항이 바로 1조의 내용이라고 한다.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³²

³²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70.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서로 토의하는 첫 시간의 속기록을 보면 최초발언자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각 단어, 각문장마다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논쟁들이 오고갔다는 것이다.³³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모든 내용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1조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같은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문장이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한 근거는 바로 사람이 ‘이성과 양심’ 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성과 양심’ 을 가졌다? 이것은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분 짓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반론의 여지 또한 많다. 어떤 상황 속에 이성을 잃은 경우, 혹은 어떤 문제로 이성적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채로 태어난 경우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까? 역사적인 사례 안에서도 나치가 이성을 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불치병환자나 정신병환자들을 안락사하는 정책을 미리 펴본 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집단학살 정책인 홀로코스트를 펼쳤던 경우도 있었다.³⁴ 세계시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활동을 권장하는 인간존중에 대한 근거가 때로는 허점이 보이기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보완하고 또 더욱 명확히 하는 근거가 기독교 성경 가운데 있다. 먼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창세기의 구절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

³³ 앞의 책. 72.

³⁴ 이언커쇼, 히틀러2:몰락 1936~1945, 이희재옮김, (서울: 교양인, 2010), 59.

다는 성서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6-27절과 5장 1, 3절에 나와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내용 안에서 창조주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선언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한 형태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것은 우리의 기원이 신적특성을 가졌다는 존재적 기원으로부터 인한 의미와 더불어 나아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한 인간간의 상호존중과 애정을 나타내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인간존엄성의 이유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 속에는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다. 특히 계약법전으로 알려진 출21-23과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약자 및 이주자의 보호, 가난한자와 그런 상황을 양산시키는 경제적 착취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을 문제시하고 있다.

노예제도는 사실 구약시대에 사회적 제도로서 인정하였던 내용이었기에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았다. 혹자는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였기에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예규정들(출21:1-11)은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성경은 경제적 이유로 팔려온 노예를 칠 년마다 자유를 줄 것을 규정하며(21:2),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종보다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적인 구조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출21:7-11).

³⁵ 김형민, 기독교 신앙에서 본 인권의 의미, (서울: 기독교통일학회, 2007), 100.

신명기는 7째날 쉼을 누리는 안식일의 규정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허락하고 있고(신5:14), 주인을 떠나 도망한 노예들도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배려하라고 이야기 한다(신 23:16-17).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 충분치 않을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주인의 소유권, 처분권을 제한하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다루어진 것이었다.

또 성서는 가난한 자, 약자, 위험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 사회적 보호령을 만들고 있다.³⁶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부양권을 박탈할 수 없게 제정하고 있고(신22:1-4; 24:6, 10-13, 19-22) 노동자의 품삯은 그날에 주어 생계가 위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신24:11).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며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것이라는 안내도 하며(신24:19), 자신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방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방인들, 외인들을 따뜻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도 하다(출 22:11)

신약에서도 인권에 대한 내용은 이어진다. 세례요한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올 것이라며 위로와 약속의 설교를 했고(눅4:18), 예수의 산상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의로운 자에게 허락되는데, 이 의로운 자는 박해를 받고 슬픔 속에 있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마 5:3-12; 눅 6:20-22)

성서 속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성서 속 인권의 언급의 많은 부분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 침해로 인한 존중받지 못함의 피해가 보호되도록 하는 맥

³⁶ 앞의 책, 101.

락에서 다뤄졌다는 사실이다. 김형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권의 사상적 기원은 다양하나 그 출발점은 전형적인 불법경험이다. 인권은 우연한 발견물이 아니라 불법이 자행되는 역사현장에서 요청되고 발전해온 역사적 성과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인권이 만나는 삶의 자리도 인간의 존엄하고도 인간다운 삶이 거부당하는 고난과 불법의 현장이어야 한다.”³⁷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리들 곧 아동노동착취, 장애인의 권리침해, 비인도적인 행위,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대서 오는 차별행위와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인권존중 필요의 목소리는 제기되었다. 그에 다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에 맞는 인권의 당위를 끄집어내는 성서 속의 맥락도 비슷하다는 점은 세계시민성의 인권존중과 기독교 가치에서의 인권존중의 연결점을 성찰하는데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살펴보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관점, 노예가, 또 고아와 과부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 손쉽게 짓밟힐 수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행동과, 율법을 통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를 향한 인간존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근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로 모든 인간이 신적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렇기에 신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계시민적 인권존중 지향 점에 있어 굉장한 보완적 인사이트를 준다. 더불어 세계 속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그 현장들 속에서 그들을 향한 존중의 목소리 필요가 나온 것처럼, 성서 속에서도 인간의 마땅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그러한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며 성경 곳곳에 그것을 보완할 중요한 가치와 명

³⁷ 앞의 책, 106.

령 설정하였다는 지점은 세계시민성 속의 인권존중의 주제와 매우 맞닿아 있으면서 그 필요를 충실히 설명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이웃사랑의 원칙

세계시민성의 주제는 사람을 관통한다. 인권과 평화, 환경문제와 문화 간 이해 등의 필요를 주창함의 기저에는 그 주제가 담지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인해 피해를 입는 세계 곳곳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출발점이자 핵심 동기, 그리고 나아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사랑사랑이 세계시민성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독교와의 접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사상도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가치를 한 두 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예수시대에 한 율법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께 나아와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6-40).” 말씀하신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계명의 무게가 같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사상인 이 사랑,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의 이웃사랑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 세계시민성과의 연결점을 확인해보겠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신·하나님·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그러한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추상적이며 모호한 지점이 있다. 이 고백의 온전성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신 또는 예수가 어떤 존재이며 그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짚어보는 것이 그 사람 신앙의 진정성을 살피는데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³⁸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는가.” 라는 종교적 질문을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킴으로 신에 대한 사랑고백의 모호성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³⁹ 이러한 질문의 핵심은 신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신이 어떠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전환시킨다. 그 사람이 가진 신이해, 신에 대한 개념에 따라 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과 미움을 이기심의 발현을 정당화한다. 그러한 행위를 신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혼동한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이웃을 사랑함이 신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접점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표현한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신을 알 수 있으며 (요한일서 4:8).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신도 그 안에 거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4:16).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행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마태복음25:40)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신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을 사랑

³⁸ 강남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280.

³⁹ 성어거스틴, *참회록*, 박재천 옮김, (서울: 기독교인문문화사, 1992), 245.

한다는 것' 은 어떤 교리적 고백이나 종교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그래서 '신사랑' 은 곧 '신에 대한 나의 이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신사랑 은 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진정성 있게 따르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웃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독교 핵심 가치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 '둘째도 곧 그와 같으니라' 는 수식어를 도출해내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살펴보았듯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루는 이웃의 범주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사실 유대교 전통에 있어 이웃이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의미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희년사상에서도 이웃과 비이웃·이방인의 경계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희년은 민족적 동일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신15:2) 같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의 정황이 전제된 제한적이고 축소된 의미의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예수가 오셨고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신다. 곧 이웃을 사랑하되 그 범위를 원수사랑에까지 나아가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마5:44; 눅6:27; 35)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 는 질문에 따르는 예수의 선한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5)에는 사회적 중심부에 있는 유대인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강남순은 이것이 친구-이웃-원수의 기존 경계를 단호히 넘어설 것을 요청하는 예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유대

⁴⁰ 강남순, 코스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283.

인들에게 전적 타자 적대시 되는 타자로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기존 통상적 이해에 따르는 이웃과-원수의 의미에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웃사랑-원수사랑이라는 예수의 사랑의 의미의 갱신과 요청은 그렇기에 모든 인종, 성별, 국적의 경계를 넘어 그 사랑이 모든 인간을 향하는 것이어야함을 역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⁴¹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범주에 넣고, 원수를 이웃에 넘는 급진적인 예수의 이웃사랑에 필연적으로 생각해야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자선과 친절함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치-사회구조적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이다.⁴² 예주시대에 오랜시간 기독교 권 위치에 있었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이웃사랑의 개념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이다. 그들에게 오랜시간 종교적인 해석의 결과물 등으로 기피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을 그들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는 권력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수반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음에도 예수는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길 주저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이웃사랑을 대상의 차별 없이 치유사역 속에, 말씀사역 속에, 십자가 사역 속에 담아 내셨다. 많은 기독교 사회가 이웃과 타자의 의미를 축소하고 개인화한다. 현대사회 속 이웃사랑의 의미가 지닌 복합적인 정치적·사회적 요소를 비껴가려한다. 사회적 통념 속에 사회적 약자로 구분된 자들에게만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웃화는 쉽지만, 굶주린 북한 주민이나 망명을 신청하여 입국한 난민들, 구조 악 속에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아프리카

⁴¹ 앞의책, 288.

⁴² 앞의책, 287.

아동노동의 착취현장의 대상들에게는 손쉽게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거나 사랑의 실천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탈정치화되고 사회적 구조 문제들이 관심 있어하는 정의의 의식이 배제된 이웃사랑의 담론은 낭만화 된 구호이고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⁴³

세계시민성의 의식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웃은 결코 낭만적으로 아무고민이나 위험성 없이 우리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대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들을 향한 이웃화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정치적 시선을 넘어서는 선택과 굳이 그동안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로 이웃이라 칭할 필요가 없었던 대상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선택이 동반되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이웃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예수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결론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독교와 세계시민성의 놀라운 교집합의 지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약성경의 또 다른 다수의 저자인 사도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와 예수의 가르침의 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2:19)” 그동안 외인, 곧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동료시민(co-citizen)이자’ 신의 한 가족 ‘이다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편견과 정치적 상황을 넘어 범세계적 이웃화를 선보이며 세계시민성 안에서의 기독교적 근거를 나타내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기독교의 핵심사상인 이웃사랑의 개념은 기존의 ‘이웃사랑’의 범위가 ‘원수사랑’으로 확장되며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등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환대, 책임, 연대의 요구를 한다고 볼

⁴³ 앞의 책, 301.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세계시민성이 제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간이해에 대한 종교적 근거가 될 수 있겠다.⁴⁴

B. 기독교의 시대적 과제와 세계시민성의 연결점

1. 교회의 회복으로서 공공성 회복

성경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부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기록한다.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였고, 백성에게 칭찬받았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나아와 함께 성도가 되었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기록한다. 그런데 그 사이 중요한 표현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이다. 고영민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 주석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라고 표현한다.⁴⁵ 부흥의 일이 일어나는 전제로서 모든 백성, 곧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호감을 샀다고 기록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대기독교의 모습을 보았던 당시 외부인의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 폴리니우스는 트라얀 황제에게 자신이 보았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보고하며 "그들은 범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라고 보고했다고도 알려져 있다.⁴⁶ 교회의 성장의 과장에 교회 밖 사람들이 살펴보기에도 매우 호감을 느낄만한 모습으로 그 성도들이 보여졌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인 삶의 모습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도가 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⁴⁴ 앞의책, 22.

⁴⁵ 고영민, 원문번역주석성경, (서울:쿰란출판사, 2015), 783.

⁴⁶ 위의책, 783.

부흥에 대한 기술은 이처럼 사람들이 보인 직접적 종교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이타적 형태의 기술이 함께 뒤따르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교회를 넘어 잠재적 전도의 대상인 일반 한국사회의 시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어떤 지점을 놓쳤기에 초대교회와 같이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외부의 공격으로 야기되는 위기와 내적 체계의 무너짐으로 인한 위기가 그것이다. 둘 다 각성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성서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로부터 말미암은 위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포로생활 중이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성경 속 믿음의 체계는 약화 되기 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증명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내적으로 믿음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무너지게 될 때 그 위기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홍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현시대 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를 살펴보면 외적으로부터 가해지는 신뢰도 하락, 굵지 않은 시선 등이 있지만 이것의 원인을 성찰해보면 이것은 교회를 꺾어버리는 외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내적체계의 무너짐으로 오는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할 질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완성으로서의 공공성

고린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키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전 1:1-3). 교회는 곧 성도들이며 성도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성’이 얼마나 온전한가가 곧 성도의 순도를 나아가 교회의 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이고 온전한 성도들의 합이 곧 온전한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경 속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의 차이는 곧 교회가 본질로부터 떨어진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천년 전 그리스도가 보인 모습과 오늘날 교회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그 차이 중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공생애 당시 대면하여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라고 본다. 예수가 만났고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대상들은 기성종교와 그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되지 않았다. 예수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며, 유력하지 않는 어부를 제자로 삼았으며, 종교적으로 유대교로부터 터부시되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제도권 교회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 성전 앞에서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며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생각했으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났고 죄인들과 교제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강도를 구원하였으며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강도만난자의 이웃의 비유를 들며 사마리아인을 다시 이웃의 범주에 끌어들이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였다.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행적을 제일 구체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는 종교적, 정치적, 계층적, 윤리적, 제도권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존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경계를 넘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며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죄인들로부터 물을 들

어 변화하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사시되 이러한 경계 밖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쩌다 일어난 예외적 이벤트가 아니라 공생애 기간동안 반복되어 일어나고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핵심적인 그분의 가르침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보여 질 정도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가 과연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예수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고 있는가? 교회의 경계를 넘어, 종교적, 정치적, 계층적, 윤리적 틀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심가지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계몽주의 이후 종교, 윤리, 의미 등이 사적,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과 이분화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⁴⁷ 분명 예수는 그전에 경계가 그어져 있고 이원화되어있던 신앙생활 및 실천의 반경을 과감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몽주의, 근대화의 진전과 더불어 기독교가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공적인 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⁴⁸

위르겐 몰트만은 공적연관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⁴⁹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답고,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 내적으로만 관계성을 뺏어서는 안되고 교회 밖 공공적 영역을 향해서도 영향력을 발하고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정체성의 형성 및 유

⁴⁷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서울:새물결플러스, 2019), 12.

⁴⁸ 성석환은 세속화 이론은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며 사적인 선택의 문제로 퇴보하여 사사화 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앞의 책, 46.

⁴⁹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253.

지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연 앞서 말한 그리스도 본연의 삶의 모습이 많은 부분 교회 밖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누군가만을 넘어서 이 사회의 일원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대상과 장이 공적 영역이라 할 수 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향의 필수적인 연결 지점으로서 바로 이 영역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의 책임성 실천의 관점으로서의 공공성

은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와 세상과의 연결지점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평가를 양산했다. 개별 종교기관을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관점에 있어 기독교는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는가? 기독교성의 중심에는 예배라는 종교행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배라는 행위는 중단된 적이 없었고 전쟁 중이나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지속되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중요도는 교회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목숨을 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종교집회의 제한이라는(사실상 모든 집회의 제한) 정부로부터의 일시적 규범이 세워졌었고 그에 대해 종교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규범에 대해 반응했다. 현장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오게 된 모습에 대해 사회를 위해 일시적 중단 내지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순응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 여기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대응 속에 국민들이 느낀 교회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에서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79.3%가 ‘개신교는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코로나 19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한 조사의 결과 속에서도 긍정 21.8%, 부정 69.9%로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높게 나타났다.⁵⁰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고, 두려워해서는 안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는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과정가운데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결과로서의 모습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이미지가 과연 이번 코로나 대응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교회를 평가하는 결과였을까?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설문에서도 법적인 해석을 떠나 국민들은 ‘제한 할 수 있다’라는 응답에 85.5%의 응답율을 보였고 이는 코로나 초기에 보인 같은 응답율의 58.9%보다 훨씬 더 높아진 비율이었다.⁵¹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내적으로 예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는 별도로 세상 사람들은 종교단체의 이미지가 우리 사회전반의 공동이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결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배라는 교회의 정체성 성립의 요소와 사회적 책임 혹은 역할이라는 교회의 정체성 성립 요소와 상충 속에서 교회가 택한 선택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들은 비단 ‘예배 지킴’이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해왔던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지표들은 10여년이 넘게

⁵⁰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기아대책, 한국교회트렌드 2023, (서울:규장, 2023), 223.

⁵¹ 위의책, 219.

불교, 카톨릭에 비해서 꾸준히 낮은 지표를 보여왔다. 국민일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별 이미지를 단어로 형상화한 지표에서 불교가 ‘포용적인’, ‘상생하는’, 카톨릭이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도덕적인’이라는 지표가 높았던 것에 반해 개신교는 ‘배타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이라는 결과를 보였다.⁵² 종교성과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집중이 있는 개신교인데 오히려 사회로부터는 멀어지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보이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대사회적 이미지나, 평가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처신을 해나갈 필요는 없다. 교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며, 인기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평가들이 의미하는 것이 혹 교회로서 응당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된 열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해당 공동체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 속에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적용되는 방향으로서의 교회의 움직임은 결국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있다. 그 수많은 교회를 향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가 혹 교회가 지나치게 교회 내부지향적인 부분과 더불어 소홀히 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추적조사에 교인들이 답하길 코로나 이후 교회가 힘주어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1위가 ‘주일 현장 예배’가 뽑혔지만 2위로 큰 차이 없이 ‘지역사회 섬김, 교회의 공공성’이 차지하였다. 교인들 역

⁵² 위의 책, 228.

시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지표였다. 뿐만아니라 목회자들 역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 다음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일상 생활신앙의 강화’,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을 꼽았다.⁵³

교회를 향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공적 역할에 부재로 인식하는 것에 이어서 교회 내부인들의 시선 역시 교회의 공적 역할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와 내부의 시선이 동일하게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밖에서 보기에 안에서 느끼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된 방식을 넘어서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의 지표들이 단순히 저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가 될 수 없다. 교회 밖에서 반응하고 그들이 느끼는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이신 사랑 실천의 방식이기도 하다.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숭고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⁵³ 위의 책, 232.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⁵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의 능력에 맞게 스스로 낮추시며 일하셨다. 피조물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에 맞춰 낮아지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종교적 표현의 방식만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교회 밖에서 직접적인 종교성을 띄지 않은 공적영역에 대한 교회의 어떤 역할 감당은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말하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른 언어, 너무 다른 사랑의 방식을 쓰고 배타적으로 행동한다며 불편해하고 있다. 그들이 왜 불편해 하는지, 교회의 사랑전함의 방식과 사회적 역할 감당의 모습이 너무 교회 중심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감당으로서 공공적 영역에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교리적 의미로도 부합하지만 동시에 사랑 표현의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일인 것이다.

⁵⁴ 존칼뱅,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8), 류영모외 18인, 공적복음과 공공신학, (경기:킹덤박스, 2021), 112에서 재인용.

2. 공공성 회복으로서 세계시민성 지향하기의 적합성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한다고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이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⁵⁵이다. 하지만 공공성은 좀 더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공공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민(국민), 공공복리, 공개성이 그것이다. 인민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시민을 말하고, 공공복리란 특정 개인이나 구성원이 누리는 복리가 아닌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누리는 복리를 뜻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개성인데, 공개성은 앞서 말한 공공복리가 진정한 공공복리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이것이 누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 하는데 다른 시민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과연 공공복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따를 수 있다. 그렇기에 진정한 공공복리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그 공공복리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⁶ 이것이 바로 공개성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개성이 전제된 과정이 뒤따라야만 공공성은 진정한 공공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위한 선한 일은(공공선)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은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와 연관이 있고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 적절한 합의와 분석과 조사, 나아가 전문성이 때론 가미 될수록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한 규명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

⁵⁵ 다음 국어사전, <https://dic.daum.net/>

⁵⁶ 이도영, *폐어처치*, 217.

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고 치자. 교회는 과연 지역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해 진정 지역사회에서 합의된 선한 일을 행하는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하면서도 교회가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전도목적으로 한다(75%)거나 형식적으로 한다(57.4%)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했다.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의 이웃사랑을 위한 활동을 진정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적 선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⁷ 변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선행에도 공개성을 기반으로 한 주도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인력으로 하는 선행이지만, 그것으로 스스로의 주도권을 주장하며 사회에 필요한 일은 이것이다, 독점적으로 규정하고 선부르게 포교적 의미를 담은 선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고 다양한 사랑을 실천한다 하여도 세상에서는 이를 지역을 위한 공공성과는 상관없는 당신들만의 선행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은 우선 물리적으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교회가 이사 갔을 때 지역주민들은 교회가 이사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선교적교회 차원의 유명한 질문이 있다. 만일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있어서 지역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다. 그럼 그런 교회는 만일 내부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이 교회가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지역주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 교회만이 아닌 지역에 순기능을 하는 교회서 존재하는가를 묻는 질

⁵⁷ 목회데이터연구소 · 회망친구기아대책, 한국교회트렌드 2023, 223.

문이 바로 위의 질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능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이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좋다고 느껴 질만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공적 역할 감당이 부족한 사회적 인식이 태반이라 지역을 향한 공적선행이 우선되어야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적 역할의 범위가 지역에 기능하는 것으로 충분한가를 물을 때 온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 세상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 복음의 지향성에 뒤따라 이웃사랑 실천의 지향성도 지역을 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넘어서서 응당 모든 민족과 세계전체를 향하는 지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밀접한 현실로 느껴지는 생활을 하는 요즘이고 이러한 상황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계속해서 가속화 될 것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촌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리감은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또한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일러준다. 특별히 이를 가장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미친 코로나 사태라 할 수 있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의 전파는 지역을 넘어 순식간에 전세계적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비단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거나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기 전세계는 전염률을 국가별로 다루었고 국가 간에 이동에 제한을 두며 전염이 전파되는 것을 통제했으며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백신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며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매해 지구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갱신되고 있고 이를 입증하듯 대기의 온도는 지난 2백만 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이며 지구온난화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폭염과 가뭄, 병하소실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오존층의 파괴 등 생태계와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020년 1월 발표한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 세계 산업계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NGO), 또한 관련분야의 여러 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20년대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에 대한 위협은 기상이변이 꼽혔으며, 그 뒤를 이어 5위까지 기후변화의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의 손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환경 재난이 각각 다음 순위를 기록하며 10개 항목 중 상위 5개가 모두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기후문제의 특성은 절대로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노력과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해결 가능 한 것이라는 점이다. 유엔과 IPCC⁵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고 대응해 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전염병문제, 기후 문제 뿐 만이 아니다. 빈곤의 문제, 교육의 문제, 난민과 불평등의 문제 등 세상은 갈수록 서로 가까워져 가고 있고 개별국가단위로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처럼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성격이 많아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공공성을 지향한다고

⁵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국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의제 실행 여부를 점검하며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IPCC는 인간 활동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컨센서스(consensus:의견 일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할 때, 공공복리가 무엇인지를 공개성을 기반으로 함께 묻고 설정하는 것을 전제할 때 더 이상 교회의 공적영역의 대상은 ‘지역’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분명 교회의 낮아진 신뢰도에 대한 대응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과 그에 대한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에 대한 관심, 세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그 범위가 확장됨으로 더 온전해 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필자는 세계시민성 지향하기가 교회가 공공성 확장을 위해 적합한 실천의 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교회의 세계시민성 지향하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공적영역 참여 실천에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이웃사랑의 지향성이 세계 열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공성의 특성상, 온전한 공공복리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넘어 시대적 문제, 시대의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는 많은 부분 세계적 틀에서 고민하고 다뤄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세계시민성 갖추기에 대한 강조는 이미 최적의 세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 끝에 적지 않은 시간 강조되어 오고 있다. 교회가 공적영역에 참여하며 공공성 확장에 기여한다 할 때에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시민성 속에 녹아있는 기독교적 의미를 잘 발견하고 해석해낸다면 참으로 적절한 기독교 교육의 한 모습이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시민성에 대한 가치가 결합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틀은 적합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성 기여의 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기독교 세계시민교육 활용사례

A.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적용: 치유하는 교회

1. 개요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공공선 부분에 고민하고 기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별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다고 말할 때, 지역적 차원에서만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세계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살피는 장을 기획했다. 교회의 공공적 역할 감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되 그동안 더 우리와 거리가 멀게 여겨졌던 세계시민적 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것이 이번 강의의 지향점으로 두었다.

기독교 세계시민교육 과정은 총 8강으로 구성했다. 세계시민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통해서 8번의 강좌를 준비했고 첫 시간은 전체 강좌에 대한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후는 주제별로 구성하되 한 회기는 보다 현장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특강의 순서를 집어넣었다. 또한 세계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수업 진행의 과정에서도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형태를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토론형 수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회기는 지역에 나아가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는 순서도 수업 진행 안에 포함하였다.

수업은 2023년 3월16일-5월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업의 길이는 대략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장소는 치유하는교회 중등부 예배실 뒤편의 서로 마주 보는 형식의 사각형 테이블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수업 전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서로 부드럽게 먹고 마시는 분위기 속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치유하는 교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3월과 6월 진행되는 성경책별 성경공부가 부목사님들의 숫자에 따라 대략 10개 반 정도가 개설되고 한 달 전 교회 주보를 통해 성경공부반이 된다고 공지를 한다. 기독교 세계시민학교에 대한 홍보도 기존 성경공부 홍보와 같은 틀 속에서 한 달 전 주보 속 간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였고 처음 행하는 것이다 보니 추가로 소그룹별 리더들을 통해 SNS를 이용하여 그림 형태의 안내문을 만들어 추가 공지하였다. 최종적으로 22명의 참가자가 함께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고 구성원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되 주 연령층은 50대와 60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2. 중점 사안

수업을 기획하면서 교재구성과 수업 진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지점은 첫째로 성도들이 낮설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완화하기였고, 둘째로 지식적인 수업으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째 부분, 성도들의 낮설 수 있는 부분 완화하기는 역시나 그전에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을 교회에서 다루는 데서 오는 거리감에 대한 고민이었다. 실제로 과목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자 이 수업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이냐고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수업에 오시긴 하셨는데 과목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시간이 남고 뭐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과목 자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신 분도 있으셨다.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미 홍보상황에 포함이

되었지만, 성도들의 낮은 부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정도로 상황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면서는 다과와 사전 모임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최대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드리는 것과 궁금한 것 매시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성경과의 접점에 대한 부분을 일반 세계시민교육 보다 길게 진행하는 것 등의 보완의 틀을 만들었다. 기독교 세계시민교육과 일반 세계시민교육의 차이이기도 한데 특별히 매 세계시민교육 주제별 성경 속 내용을 다루면서 왜 이 주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 있고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시간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초기엔 전체 시간의 반 가까이 이 성경과 연관된 주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수업 구성에 있어 지식적인 전달과 수용의 과정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고민했다.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환경의 이슈가 무엇인지,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등은 지식적인 영역이었다면, 세계시민성과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지의 확장과 더불어 가치의 확장(다양성, 이타주의, 공공선에 대한 헌신의 마음), 태도의 확장(인류애, 수용력, 지역과 세계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찰, 세계문제 이슈에 대한 관심, 환경보존 관심과 노력) 기능의 습득(비판적 사고, 타인존중, 협력 및 협상능력, 협동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길지 않은 한회기의 수업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변화되길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 태도와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 수업을 통해 영향이 있는 과정을 내포하도록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업의 방식에 있어서 참여형 수업의 일환으로 수업 시작과 중간, 마지막에 생각해 보고 질문에 답하고 상대방의 답에 추

가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을 유도했다. 한 회기를 아프리카 현장 속에 계신 분을 초청하여 현장감이 더 살아있는 수업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이슈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도 분노하고, 위기감을 실제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정보를 전달 및 공유하였다. 이는 이지적인 수업을 넘어 감성적 영역을 건드릴 때 그들의 가치와 태도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함이었다.

3. 수업과 교재의 구성

수업은 총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1강 세계시민학교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각각 2강 기후문제1, 3강 지역사회참여하기와 실천, 4강 기후문제2, 5강 빈곤문제, 6강 평화, 7강 문화간 이해, 8강 인권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별히 지식적 전달만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 5강, 세계빈곤에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현장구호 및 마을 만들기 NGO 단체 활동가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 특강 순서를 집어넣어 현장감이 있는 수업이 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참여 순서를 집어넣었다.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참여를 통해 이러한 태도함양의 시간을 기획하였다. 지역사회 참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하루를 교회가 속한 화곡1동 곰달래로 일대 지역 가로수에 꽃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통해 마을을 살기 좋게 조성하는 주체로서의 스스로 실천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교재는 필자가 직접 세계시민학교 주제들과 성경적 가치들을 접목하여

만든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주 사용하는 교재는 시작하며 주제에 부합하는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된다(WHY부분). 일반 성경책을 활용한 성경공부만 참여해 온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공부가 기독교와의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거부감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주제정의 등을 다룬다(WHAT부분). 마지막으로 주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이러한 주제가 왜 중요한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지금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HOW부분). 나오며 질문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주의 교재를 구성하였다.

B. 평가

1. 참가자의 평가

1) A 집사님

- 강의를 어떤 상황, 마음으로 참여 하게 되었나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 다니고있는 A집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평상시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사회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지역거리 문화사역 일환으로 거리에서 꽃 심으신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았었구요. 그렇다고 성경공부 신청 란에 보니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걸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 제목이 좀 많이 생소하더라구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문의하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계화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세계 시민이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교육도 생소한데 특히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은 더 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막상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들을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죠.

- 강의가 낯설지는 않았는지. 낯설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왜?

앞서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낯설지는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주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성경공부의 과정들 사이에서 이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틀에서 주제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했던 것 말고는 특별히 낯설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내용들 자체가 평상시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도 많았었구요. 환경문제에 다뤄주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회의 부분을 목사님께서 다뤄주시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수업처럼 느껴졌습니다.

- 강의 내용 가운데 기억 남는 부분은 무엇이며 왜 가장 인상이 깊었을까요?

평소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이라서 그 부분의 강의를 기대하며 들었는데 오히려 빈곤이란 부분을 더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 더 인상 깊게 느낀 것 같아요 빈곤이 왜 생기고 그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우리의 미미한 행동으로는 모든 것

들이 바로 바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안되지 않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로써의 모습은 그래서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런 교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나요? 그랬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느껴지셨나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을 다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교육을 통해 이러한 세계문제 지역문제 등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지역을 위하고 세계의 문제에 참여하는 걸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참여를 보임에 있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때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일때 접하는 방법처럼 전하게 되면 피하고 무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시민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또는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받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될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근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사회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강의를 들으니까 좀 더 구체화되는 느낌도 있어서 좋았구요. 몸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면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전도의 일환으로서도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구요.

- 빈곤과 불평등 문제로 외부강사님 오신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지셨나요?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몸소 살아가시는 선교사님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와 닿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전까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빈곤, 식수문제, 열악한 교육문제들에 대해서 겪으신 분의 이야기라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구요.

- 지역사회참여 수업 이후 꽃심기 실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신 소감은?

그 꽃 심기 그 길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친숙한 길이었는데,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한 길이었는지도 알고.. 근데 막상 이런 환경개선차원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가로수 밑에 꽃도 심고하니까 일단 내가 직접 동네의 어떤 개선부분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일이고, 구청차원에서 청소나 꽃심기나 하는 일이겠지 하는 부분이였다면 내가 스스로 이런 동네의

어떤 문제나 개선 부분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동네의 어떤 역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거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로수 밑에 쓰레기 많이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 특성상 숙박업소도 좀 있고 해서 여행객들도 다니고, 원룸이 많아서 1인가구 젊은이들도 많은 편에 속하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쓰레기 보다는 꽃이 있으면 좀 더 이날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동네가 그래도 꽃도 이렇게 있고 쾌적한 동네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그런 것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참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 강의를 듣기 전과 이후에 변화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일단.. 행동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진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사와 다큐멘터리를 자주 접하다보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본을 보여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그 내세우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를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듣고 난후예요. 사람들 앞에서 식사전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끄럽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의연해 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도 좋지 않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

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근데 내가 이런 수업을 듣고 꽃도 심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더 그런 시선들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지 말자는 마음을 가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전체는 아니지만 세계시민교육 제가 수업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고 또 꽃 심기도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부끄럽다가 아니라 이 정도 시선은 감내해나가자 하는 안에서부터의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야하나요? 여튼 좀 더 당당해진 그런게 있어요.

세계시민의식이 얼마나 더 생겨났냐를 물으신다면 수업의 영향으로 그렇게 막 한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하지만 공부하면서 우리 믿는자들이 실천하고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도움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이 세계 시민 의식 없이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우리가 입고 버리게 되는 옷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거나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환경문제에 더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는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거죠.

2) B 집사님

- 강의를 어떤 상황,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꽃 심기를 실천하시는 과정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밖에서, 교인&교인이 아닌 분들과 협력하여 하시게 되는 일이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공부 과목으로 열린 목사님 시간을 보았고, 예상되지 않는 수업내용으로 수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의 소개로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강의가 낯설지는 않았는지, 낯설었다면 왜?

내용 자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많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기후&환경문제, 사회격차, 빈부격차 등이 다루어졌기에 뉴스나 다큐멘터리, 학부모교육 등으로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낯설었다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꾸준히 공부한다는 경험이라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강의 내용 가운데 기억 남는 부분은 무엇이며 왜 가장 인상이 깊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배운 내용이 아주 또렷하진 않지만,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들, 영화 기생충, 등등 생각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부룬디라는 생소한 나라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께서 직접 부룬디의 실상을 영상과 함께 소개해 주실 때,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 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케냐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유엔 같은 세계기구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에게 적은 돈으로 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부룬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가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실상을 소개해주시는 현지의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 이런 교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느껴지셨나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도’ 하기에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교회가 외면받는 시대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는 전보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곳에서 투입되고 또 이미 그러한 일을 하는 있는 비교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고, 교회가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선한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임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전파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 지역사회참여 수업 이후 꽃 심기 실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신 소감은?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가로수 뿌리와 돌 때문에 꽃이 마음처럼 심어지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렸고, 심은 후에는 생수병에 물을 담아 옮겨 물을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곳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새로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참 기쁨이 가득했던 거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교회 분들과 지역사회 분들이 함께 지역을 위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함께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 강의를 듣기 전과 이후에 변화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한동안 엄청나게 철저한 소비 습관을 유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필요한 옷과 식품만 구입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생각에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지키는 것도 늘 염두 해 두는 마음은 생겼으나 부끄럽게도 생각해 보니 많이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필자의 평가

1) 긍정적 요소

기독교 세계시민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참가자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내용의 수업을 너무 흥미 있게 여기며 참여했다는 것이다. 기후문제나 빈곤의 문제를 다룰 때는 위기감에 놀라기도 하고 측은함에 우리의 삶의 상대적 상황을 돌아보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는 모습으로 실천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실천을 향한 정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고 이러한 실천적 안내가 너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전반적인 긍정의 반응들을 보면서 교회 안 리더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였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 종교적 행위를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과 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작지 않은 강조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작지 않은 영향을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향한 신학을 가지고 그들을 안내하고 돌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교회 안 목회자들의 역할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일상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 것과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초대하여 강의를 들었던 일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이 많았다. 세계시민교육 교재 속 사례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음에도 전혀 접하지 못했거나 잘 몰랐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례들이 공감을 얻고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순서 가운데 지역 참여 일정을 넣고 하루 함께 교회 주변 지역에 나아가 가로수에 꽃을 심는 일은 참여정신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처럼 보였다. 수업을 듣는 대부분이 토요일 아침에 진행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행하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일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참여함으로 비로소 경험했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가로수에 꽃을 심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가 꽃을 심는 동안 곁에 서서 주섬주섬 스마트 폰에 무엇을 적고 있었다. 왜 그러시지 하고 있는데, 스마트 폰에 한글로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쓴 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스마트 폰의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게 써준 것이었다. 참 감동적인 경험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같이 있던 참여한 성도들 역시 그러한 반응들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일에 아침부터 직접 나와 맘을 흘리며 참여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몸과 맘에 새기게 하고 이러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부정적 요소

참여한 성도님들이 성경공부가 아닌 세계시민성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면서 느끼실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발적인 신청자가 많았지만 1/3가량에 해당

하는 참여자들은 단순한 관심 혹은 주변에 권유(무엇이라도 공부해 보라는)에 따라 오신 분들의 성격을 띄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확실히 세계의 시사 문제나 내용들을 다룰 때 어려워하시고 낯설어하시는 경향이 있었다.

8주간의 시간동안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를 생각보다 깊이 다룰 수 없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지만, 앞에 성경적 근거를 소개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업적 특성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참여자 서로간에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이나 주제 자체에 대해 깊이 다루는 부분에 대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진행하는 필자의 경험적인 한계나 자료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자료는 적지 않았지만, 이를 기독교의 가치와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는 책이나 사례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번 공공적 신학의 부분과 기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서로 연결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깊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상황의 한계

기독교 세계시민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수업이 보였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자 평균연령이 조금 높았다는 것이다. 평균 50세 중반 정도가 되었는데 지긋한 나이임에도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수업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일들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다. 수업이 평일 낮에 진행한 탓이 제일 컸겠지만, 한편으로 이는 한국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평균연령 자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모습이기도 했다. 상대적 고연령자분들의 수업에서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신선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을 참여하는 연령층이 조금 더 젊어진다면 수업에 따른 어떠한 반응과 역동이 더 나왔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보다 젊은 연령층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업 시간대를 퇴근 시간 이후로 변경하는 것과 홍보시에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기존 교회 및 성도님들의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섬세하게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가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4) 보완할 지점

앞에서 언급한 비판적 성찰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내용을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세계시민성이라는 주제와의 접목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상황에 공신학의 사회적 책임의 요소를 보다 확장 적용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경공부라는 강의의 틀도 분명 그런 시각 확장의 역할을 하지만, 예를 들어 평상시 주일, 수요, 금요 모임 시 설교의 틀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르쳐지고 공유된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익숙함 완화에 있어 단계적인 도움을 입기 참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참여적 요소를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교육도 그렇겠지만 세계시민교육은 특히 지식적 측면의 교육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과목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틀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기존 내용에 접목하여 우리의 시선을 넓혀 가려는 작업 자체가 기존 교회의 영역이 교회 내부로 국한되어 있는 폐쇄성을 타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꽃 심기라는 실천시간과 토론형 강의의 틀 등을 제공하며 일부분 이러한 부분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체 회기가 끝나고 돌아

보니 이러한 실천에 대한 필요 평가는 높았고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교육의 지향성은 실제적인 움직임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특히나 함께한 참가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문제, 세상의 빈곤문제, 평화의 문제 등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실천적인 안내와 행동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독교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영역을 접목시킨 한국교회의 사례가 아직 많이 없다 보니 관련 자료가 부족했다. 네덜란드 연합교회의 SGDs와 기독교 가치를 결합시켜 성경공부교제로 만든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 과 같은 자료와 노력들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시켜 살펴보면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많이 관련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선교적 교회가 자기중심적 시선 안에 갇힌 한국교회의 대안적 방안처럼 떠오르고 이후 관련된 신학의 발전, 서적의 출간, 관련 모임의 증가 등의 모습으로 그 영향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실천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지역과 마을만들기에 그 실천적인 부분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독교 세계시민학교는 이러한 교회의 대안적 움직임으로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가 함께 공유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심각한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확장 요구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시대적 당위를 생각하며 아직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실천의 철학은 ‘할 만하니까 해본다’, ‘될 만할 것 같으니 한다’ 는 효율적 접근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한다’ 라

는 당위적 실천이어야 한다. 세계의 문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와도 부합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기독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직하게 이 영역의 확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A.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한계가 복음의 본질적인 훼손 곧 공적요소를 놓쳐왔음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교회가치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과 실천적 적용으로서 세계시민성 갖추기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세계시민성을 갖추기 위한 도구로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제 적용해보며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먼저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의 위기가 공적 영역에 대한 상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문제제기하고 이의 회복을 위해 공적신학과 세계시민성 회복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세계시민성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해 살피고 세계시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내용, 나아가 세계시민성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이 교회의 공적영역에 대한 실천적 접근으로서 가지는 적절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얼마나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하고 요구되고 있는 개념과 학문의 틀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장에서는 세계시민성과 기독교의 접합지점에 대해 논하고 교회 회복으로서 공공성과 세계시민성 지향하기가 얼마나 적합한 도구인지를 증명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이웃의 범위에 대해 지역성을 뛰어넘는 성격이 기독교와 세계시민성 간에 얼마나 적절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접근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세계시민성지향이 지역을 대상으로 실천적 활동을 해가는 교회의 마을만들기보다 어떻게 한 차원 더 나아간 공적영역 접근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IV장에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실행하여 본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참여자들의 인터뷰와 그에 따른 평가 속에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 나름의 기독교의 공적영역 기여에 적합한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B. 결론 및 제언

코로나 사태, 세계적 기후 문제 등을 겪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우리가 세계적 관점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과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감각은 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종교라는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복음과 성경의 가치가 과연 세계를 품고 세계의 문제에 대한 답을 보이기엔 부족한 종교라서 그런 것인가? 성경 속 하나님의 초점은 온통 사람에게 향해 있다. 세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위협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교회가 보이는 대응들은 교회가 성경의 원뜻을 온전히 담아 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세계를 향한 교회의 공적역할 회복에 노력을 가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맥락 속에 교회의 본질이 세계시민성적임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찰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 하나의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생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스스로가 전세계의 문제와 상황들에 대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할 수 있는 살림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낮은 신뢰도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석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복음의 공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왜곡한 성경의 편협한 해석이 교회성장과 교회 안 종교적 행위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낳았다. 그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고 배타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한다. 이것을 바로잡고 성경적 가치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바르게 그 성경을 온전히 담아내는 신학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풀어내는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나라 확장이라는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론 등의 신학의 모델을 수용하고 성경해석의 온전한 틀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교회의 공적역할의 전환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인 수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공공신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시선에 대한 것이라면 그 신학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영역은 많은 부분 교회 밖 세상이다. 최근 선교적 교회론이나 공공신학이 대안적 모델로 많이 다루어지면서 실천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만들기이다. 교회가 속한 지역을 돌보고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서 마을 만들기는 적절한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의 관점은 단순히 지역만을 공공신학의 대상으로 여기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환경문제, 보건문제, 구조적 악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계적인 역할을 요구함이 날로 높아져가는 이때 우리의 공적역할은 이에 대한 적절한 교회 밖 영역으로 호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고민하고 축적해 온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틀을 수용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셋째,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틀을 교회적 관점으로 수용할 때에 이에 대한 적절한 기독교적 해석과 세계시민교육 각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적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는 광범위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카테고리도 단체마다 개별마다 다양한 색을 띄고 있다.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세계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접근할 세계적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까지가 고려된 기독교 세계시민교육 영역을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담아내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의 자료나 성경공부 교재, 구체적으로 고안 된 실천적인 안내 모델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소개 될 때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틀을 통하여 교회의 공적역할이 적절하고 바르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새물결플러스, 2015.
-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동녘, 2022.
- 고영민, 『원문번역주석성경』, 서울:쿠파, 201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세미나』, 서울:(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 김동엽, 『하나님의그릇』, 서울:쿠파출판사, 2011
- 김운용외 10인, 『한국교회의 공적신학』, 서울:전국은퇴목사회, 2016
-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 서울:현암사, 2012.
- 공윤희외1인,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서울:창비교육, 2019.
- 류영모 외18인, 『공적복음과 공공신학』, 경기:킹덤북스, 202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규장, 2022.
- 문상모외5인, 『세계시민교육』, 서울:창해, 2021.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서울:새물결플러스, 2019.
-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한국적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서울: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8.
- 송민호,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도서출판나눔사, 2020.
- 이형기 외8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용인:킹덤북스, 2010.
- 이도영, 『페어처치』, 서울:새물결플러스, 2017
- 이도영, 『코로나19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새물결플러스, 2020

- 정우탁, 『세계시민교육과 SDGs』, 서울:주류성, 2022.
-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책세상, 2009.
-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경기:한울아카데미, 2011.
- 최미란, 『함께해서 즐거운 세계시민교육』, 서울:교육과학사, 2017.
- 최동규, 『미셔널 처치』,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17.
- 최경환,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서울:지우, 2023.
- 함보름 외 5인, 『십 대를 위한 영화 속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서울:팜파스, 2023.
- 한국일, 『선교적교회의 이론과 실제』,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 인식조사 토계자료집』,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0.
-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15.
- 현은자외 6인,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서울:학지사, 2013.

2. 번역서적

- 탐켄러, 『센터처치』, 오중향 역, 서울:사단법인 두란노서적, 2016
- 월터브르그만, 『복음의 공공선』, 정성목 역, 서울:두란노, 2021.
- 성어거스틴, 『참회록』, 박재천 역, 서울:기독교태인문화사, 1992.
- 케빈 밴후저·오언 스트래헌, 『목회자란 무엇인가』, 박세혁 역, 서울:포이에마, 2016.
-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역, 서울:갈라파고스, 2007.

3. 학술논문 및 정기간행물

최경환, “공공신학 광장에서 외치는 복음”, 『기독교사상』 제749호(2021), 9-19.

김형민, “기독교 신앙에서 본 인권의 의미”, 『기독교통일학회』, 2007, 101

박성철, “공공선과 교회의 공적 책임으로서 디아코니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제91호(2019), 207-233.

김성호, “글로벌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참된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서의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제10권 제 4호 (2012), 180-203

한강희, ” ESG시대 교회의 지속가능성과 선교적 구조로의 전환 “, 『선교와 신학』 제61호(2023).

4. 학위논문

조영춘, “민주주의 공공 윤리적 담론에 대한 교회의 공적 참여에 대한 연구:스텔리 하우스어워스, 제프리 스타우트의 논쟁을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2023.

전은진, “공적실천신학에 근거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5 .인터넷 매체

“ 교회 위기?...대면예배 회복됐지만 교인은 계속 감소 ” , NEWSIS, <<https://www.newsis.com/>, (2024,2,20 확인)>

“시온의소리-부흥의 추억” , 국민일보, 2023.6.23., <www.kmib.co.kr, (2024,2,20 확인)>

부록

치유하는교회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교안

<그림 1> 기독교 세계시민학교(1) 세계시민성이란?

Why?

◎ 잘산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론>

1.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2.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 1) 교회를 넘어서 -> 교회 밖에서
- 2) 같은 테두리를 넘어서 -> 다른 테두리를 향해서(요 4:27-30)
- 3) 개인 적용만을 넘어서 -> 삶의 체계의 변화를 향해서(막11:15-19)(눅19:1-10)

<구원론>

1. 복음과 복음적용의 우주적 성격(요 3:16)

2. 구원의 과정성(눅17:20-21)

- 아직과 이미. 정의/영화/성화.

What?

1. 세계시민성이란?

- 1) 개인,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
- 2) 문화간이해, 인권, 환경, 평화, 국제협력의 5가지 카테고리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¹⁾

2. 세계 시민성을 가진 기독교인

How?

3/16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소개	4/13	평화
23	환경(기후문제1)	20	빈곤(텐포원 한상훈 선교사)
30	지역사회참여/ 곰달래로 꽃심기	4/27	문화간 이해
4/6 (4/8토)	환경(기후문제2)	5/10	인권

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그림 2> 기독교 세계시민학교(2) 기후문제1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2강, 3/30]

Why?

- 정신나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감, 성경의 말씀을 살아냄.
- 2. 예수님은 누구셨는가(기독교론)?
- 1) 본문 (눅 10:30-37)(요 4:27-30)

25 어떤 율법교사가 밀려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를 받으라 하시니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돌가게 보아도 예수께 이르러서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네 이웃에서 어떤가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돈을 빼앗고 때려 지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제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유를 더 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누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2) 핵심메시지는?
- 스스로가 처한 환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
- 3) 어떤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담담인가(주원론)?

What?

- 1.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란?
 - 1) 시민과 세계시민
 - 2) 개인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
 - 3) 세계시민교육이 진중하는 분야: ①문화간이해, ②인권, ③환경, ④평화, ⑤국제협력
 - *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4) '진세계적협력',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 신기술, 긴급성
- 2. 세계 시민성을 가진 기독교인
- 3. 세계시민성 확장을 위한 연구: **확장**

How?

- 1. 세계시민으로서 환경, 기후문제의 중요성(성경성)
 - 1)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020년 1월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 세계시민계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관련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렸. 여기에서 2020년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에 대한 위험으로 기상이변이 꼽혔고, 그 뒤를 이어 5위까지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 유전환경 재단이 각각
 - 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의 국제사회적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환경 등)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난화, 에너지, 탈성장, 불,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교육, 성소매, 사회구조, 빈,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2강, 3/30]

다음 순위를 기록, 10개 항목 중 상위 5개가 모두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

2 IPCC는 미래 진영 기후변화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RCP)를 작성 이에 따르면 전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때 2100년때에는 전지구 평균온도가 4도 가량 오를 것이라 예측하였음.

첫 번째로 **북명**, 지구온도가 4도 상승한다면 미국 서부지역의 16배가 되는 정도가 화재로 소실될 수 있고, 열사병으로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증가하게 될 예정임. 또한 열대지방에서만 발생되던 열염분염류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훨씬 강하고 긴 폭풍과 열대야가 전지구적으로 더 자주 될 것임

두 번째로 **가뭄(산불/물 부족)**, 전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2도만 오르더라도 전세계 육수, 수주층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농도들이 빠르게 사막화가 되어 극심한 기근이 일어날 수 있음. 또한 3도가 오를 경우 아프리카 농산물의 15~35%가 감소하게 되며, 담수량이 현저히 줄게 됨

이 둘 부족 인구가 20년만으로도 늘어나게 될 것임.

세 번째로 **해수면 상승**임. 기온상승은 해수팽창, 빙하용해, 극지방의 얼음 감소로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6억명이 거주하는 저지대 해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육지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됨.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심각한 인류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배출되는 탄소량을 넘어,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 그린투자와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이번 주의 실천

- 1) 환경보전의 범주를 넘어 기도하기

우님 우리는 담심의 창조물이 인도의 이기적 행동과 욕망을 뒤늦은 결과로 인해 지루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개인과 세계정부를 변화시켜 주셔서 편리함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루더라도 더 유쾌하게 누릴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용기있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환경을 부디 보전해나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지구가 피로로 나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와 생명과 조화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 2) 기후변화 관련 영상 시청하고 오가민식과 관심의 확장)

- '기후위기가시대, 여기까지 왔습니다.' <https://youtube.be/GvprfjDrc8>

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첫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국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유인 기후 변화와 의제 설정 여부를 결정하며, 장기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IPCC는 인간 활동과 지구 온난화 사이의 연쇄적인 관련 인자를 제공하고 용법적인 간섭(consensus-의견 일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열거된 미국 부통령과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림 3> 기독교 세계시민학교(3) 지역사회참여

Why?

- 1.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교회론)
- 1) 본문(영 4:43-47)

43 사랑이다. 두려워하는 때 사도들도 열미없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더 많게 있어 모든 문지방을 서로 밟으라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성을 찬양하며 계속하는 법이니 주께서 구하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았다.
 (표준새번역; 모든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았다.)

- 2)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장송(호감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속한 모든 곳에서 이타적인 존재가 되더라

What?

- 1. 선교적교회를 건지하는 그리스도인
- 2. 세계시민 확장을 위한 연구: 지역사회행역
 - 1) 한국교회의 개인구원의 지나친 강조는 세상과 단절된 범주적 교회관 형성
 - > 지역사회의 대상으로부터 교회의 신뢰와 사회적 공신력 약화에 기여
 - 2) 지역사회를 선교장으로서
 - 선교는 세상으로부터 공신력을 얻고 있을 때 원활하게 작동
 - 세상은 우리가 진하는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주목
- > 전도는 말뿐 아니라 세상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행위
 를 통하여 지역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실천력을 갖춤으로 온전해 진다.

How?

- 1. 좋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영장서는 교회
 - 1) 성당교회: 주민들과 소통을 이루는 '종내교회'
 - 서울은영구 복변동 조주희목사 시무
 - 전문 건설장 기안으로부터 교회 건립에 관해 1년동 안 찬단발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특히 복지활동에 중점을 두는 교회로 목회와 선교센터다임을 변화시킴.
 - 4층 건물 건축하여 비전센터로 명명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함.
- * 바우럽 내부 카페: 지역주민과 함께 이를 논의하며 정환 카페를 매개로 지역주민 인문학 아카데미, 시낭송회, 작은음악회 등 주민과의 만남과 지역운동을 전개. **세가지 원칙-> 1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문을 닫지 않는다. 2교회의 홍보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3교인들의 기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 **다성종도사관:** 7년여권의 책이 있으며 지역의 젊은 영매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은 편안하게 떠날수 있는 환경 마련. 지역도사관으로



지리안아 아동과 부모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교회헌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찾아올 수 있는 동네교회가 되었고 목회자는 '동네 아저씨'로 인정을 받고 있다.

2) 학교교회: 양평의 문화 수준을 고양시킨 교회

- 경기도 양평군 곡주리. 김일현 목사 시무.
 - 83년 부인시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진교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시도기 실패. 농촌문화와 지역에 대한 연구시작. 농촌교회에 맞는 해결안을 안으로부터 찾아나감.
 * **지역공부방:** 학교에서 돌아와 할 것없는 시골아이들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전영이 공부방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자 지역학 교와 주민들 사이에서 공부방이 인정받기 시작됐다. 이 공부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면 지역사회 흐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지역 오케스트라결성:** 주부 음악단을 모집하여 네 명의 앙상블을 시작. 이 모임이 아이들 음악공부 의 활용으로 이어지고 부모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함. 지역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악성 을 익힘을 전개하고,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함. 교회건물을 신 축하며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고, 지금은 연 3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개최장으로 양평군과 서울에도 알려진 문화활동 하는 교회로 알려짐.

- 교회밖 사람들을 데려다.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전도방식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필요를 찾아봄.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교인이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이 교회 가 되게 함. 교회 주변 6개 리 지역을 곡주교회로 선보이고 교회 영역을 확대하며, 이후 교회의 모든 정 책을 교인들 위한 것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에 초점.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해외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됨.

3) 자유하는교회.

- 우리교회가 속한 강서구와 화곡1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 지역사람들은 자유하는교회를 향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2. 이번주의 실천: 골달래사거리- 화곡동사거리 사이 가로수에 봄 꽃 심기

1. 사업명 : 꽃피는 우리마을
2. 목적 : 우리마을(화곡동)의 사적인 불모지를 꽃심기를 통해 좀 더 화사하고 정감 가는 마을리로 바꾸고자 함.
3. 진행방식 :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골달래사거리 사이(700m)에 있는 가로수 밑(약 200그루) 각 각 불모지(땅과 가로수 밑)에 두 차례에 걸쳐 계절 꽃을 심음.
4. 효과기대 : 강서구는 서울에서 용마구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지역(45만) 그 용역사도 특별 거주민(19만) 그 다 용으로 높은 수직인 밀집(45만)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직이 거주하는 강서구 및 서울시 최대 인구밀집지역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곡동 일대는 거주민구의 감소로 인하여 녹지가 매우 부족하고 근린사설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 한 특성이 있음 . 지방자치 거점인 양주시 세릉계 중(지대는 마곡 신도시동지역 비해 관심과 투자가 미비하여 이러한 상황 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더욱 거주하는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기 힘든 요소로 작용 .
- 우리마을 변화는 온 지역에서 자발적 참여의 용역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시도 등의 움직임을 갖는 것도 마을을 화곡동(화곡동)에 좋은 것임에 할 수 있음 .> 꽃심기는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노력이면 즉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 누락, 명목 불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도 주도하던 형태로도. 운영되었듯이 녹화사업, 풍광기 사 밀은 환경은 개선하는 다사실의 효과가 있음 .
- 골달래로는 특별히 개선사업으로 오고가는 용동근구가 큰 지역으로 이 곳에 정철마다 심겨진 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에게 골달래의 감동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hy?

What?

[기후문제]

How?

1. **현상**
 - 1) **급격한 대기의 온도상승**
 - 지난 2백만년중 가장 높은 수치/ 지난 5년간 지표면 온도 1850년 이후 최고치
 - 지난 100년동안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량 30%
 - 2) **여름의 증가(한국)**
 - 지난 100년동안 여름이 20일 증가(겨울 그만큼 감소)
 - 2040년 여름 30일 증가 예상
 - 3) **생태 어항자 현상(Ecological mismatch)**
 - 꽃, 꿀벌, 계절..
 - 4) **자연재해**
 - 폭염, 가뭄, 홍수 등
2. **피해와 심각성**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2020년 1월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 세계산악계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관련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림. 여기에서 2020년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에 대한 위험으로 기상이변이 꼽혔고, 그 뒤를 이어 5위까지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 유밀환경 재난이 각각 다음 순위를 기록. 10개 항목 중 상위 5개가 모두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

 - 1) **복구 불가능한 지점의 가시화**
 - Tipping point(기후위기 임계점): 지구온난화가 멈추어도 기후시스템에 멈출 수 없는 변화가 발생되는 지점. 지구온도 1.5도 증가(이미 1.1도 상승)
 - > 그린란드 빙산붕괴, 남극서부빙산붕괴, 영구동토층 해빙, 전세계 열대 산호초 소멸 등
 - 2) **농업과 식량대란**
 - 기후변화에 가장먼저 반응하고 영향 받는 영역
 - 식량대란 -> 사회붕괴 -> 전쟁?
 - 2) **사회적 약자들**
3. **대응책은 무엇인가?**
 - 1) **단체적 접근**
 - ① **국제단위**
 - UN- 파리기후협약: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일
 - 1) 물이 가득 찬 칠판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물이 붓고하게 수으면서 물의 높이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넘쳐서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때 물이 넘치는 국적인 변화의 순간을 말한다.

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재(2015-)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국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의제 실행 여부를 점검하며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 IPCC는 인간 활동과 지구 온난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범위한 컨센서스(consensus-의견 일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열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④ **국가**

그린뉴딜: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진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 미국 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채택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사회 전환제안

한국의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하고,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중단하며, 2034년까지 국내 미세먼지를 40% 줄임.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 확대

⑤ **기업**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음

- 블랙록, 레리펜크의 서신

⑥ **개인**

- 환경감수성, 실천
- 그레타 툰베리: 체제순응적 태도를 넘어서 정책에 변화에 영향미칠 수 있는 고민과 움직임.

4. 우리의 실천과 고민(다음장)

- 1) 주간 결핵인 진행(기도, 실천)
- 2) 지속적인 학습
- 3) 정책추진에 참여
- 4) 환경참여 놀이 및 대화

<그림 5> 기독교 세계시민학교(5) 빈곤과 배편 이

빈곤과 불평등
아프리카를 돕는 NGO 대표 한성원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

동명상 사형

빈곤이란 무엇인가?

소득부족? 소득이 많은 빈곤자?
가난?
가난하지 않은 자중에 빈곤한 자는 있을까?
미국에는 빈곤한 사람들이 있을까?
역량을 결핍 기회와 자유가 결핍한 상태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 경제적 지표: GDP(인당), 수임지표(인당 연간 소득), 소비지표(현대빈곤선), 현대빈곤선 일 1.9달러 미만(2015년 부처)
- 역량 중심 접근법: 다차원적인 접근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부족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자원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결핍한 상태로 본다. 이때 개인의 능력, 기회, 자유는 한 사회가 가진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위하므로 국가는 모두 시민에게 교육, 보건, 안전 등 사회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기회 및 참여의 개인적 역량 확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인간개발지수(HDI, 1990) 평균기대수명, 문해율, 교육 수준 등 포함.

왜 빈곤할까?

- 개물라사? 예)프랑스부리로 키키오 재배의 하루 임금(400원)
- 능력부족? 예)동일한 업무와 다른 임금 체계
- 인기 다른 이유? 없는 게 아닐까? 개인적 원인 < 사회적 원인 >
예) 이라크 원 재배와 체계화
- 나라간 무역의 과잉 공평일까? 불공평한 계약!
- 현재 세계 농업 생산량을 120억 명이 먹을 분량임.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배분이 문제!
- 미국에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예) 케이다 어린이
- 결국 빈곤은 평등의 문제!
"모든 영혼을 동 같이 공평을 하라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아디(요3:24)"

빈곤의 순환

- 빈곤 > 교육 기회 부족 > 저임금 일자리 > 빈곤
- 빈곤 > 영양 부족 > 질병 발생 > 의료비 부담 > 빈곤
- 빈곤 > 주거 환경 열악 > 질병 발생 > 의료비 부담 > 빈곤
- 빈곤 > 주거 환경 열악 > 질병 발생 > 학업 성적 저조 > 저임금 > 빈곤
- 빈곤 > 가족과 분리 > 아동 노동 > 학업 성적 저조 > 저임금 > 빈곤
- 빈곤 > 가족과 분리 > 교육 기회 부족 > 저임금 > 빈곤

동명상 사형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세계 최빈국 부룬디

동명상 사형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빈곤의 해결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 개별적인 접근 방법과 더불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함
- 사단법인 대표회장
1) 주민소득 증대 사업: 복지은행, 정육식당, 농기계, 마점 등
2) 지역기업육성사업: 지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장애인창업지원사업 등
3) 지역기업육성사업: 저소득층 창업 지원사업 등
4) 지역기업육성사업: 저소득층 창업 지원사업 등
5) 지역기업육성사업: 저소득층 창업 지원사업 등

2022년 텐포원 부룬디 사업보고

동명상 사형

감사합니다.

<그림 6> 기독교 세계시민학교(6) 평화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7강. 5/10]

3) 절대적 환대:

-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복수하지 않는 환대

How?

1.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파르트헤이트(1948년)

- 디스틀릭트9 날 불출립프 간독.

남아공에서 유색인종 25km밖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 모티브 '세상이 점점 요하네스버그를 닮아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다문화화

- 동부이촌동, 서래마을, 대림역 차이나타운
- 다문화 학생 전체 학생의 2%, 학폭의 비율 1%: 5%
- 아주먼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3. 차별의 날 놀이

- 제인 엘리엇의 초등학교 교사(1968년 마틴루터킹 목사 사망 다음날)
- 갈색눈(유월집단) vs 푸른눈(영등집단)
-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은 원인이 아닌 다음에 대한 '다수의 반응'

4. 융광로 사회 vs 모자이크 사회

- 융광로 사회: 전체를 녹여서 하나의 같은 문화로 만들
- 모자이크 사회: 다양성 존중, 각자 다른 모자이크를 합쳐 하나의 국가를 만들

5. 생각해보기: 도시니어슨(60세 이상 출입금지)

- 주인 마음대로 vs 노인이라고 차별 부당



6. 이번 주의 실천

- 1) 환대의 방법으로 입장을 살기
 - 가정과 일장에서 비탄대적 나의 태도를 성찰하기
- 2) 사회에 장식해 있는 비탄대적 태도들을 발견하기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인, 탈북민, 타민족, 이주민의 차이속에 포용과 배제의 태도중 무엇이 더 적용되고 있는가

2) 2015. 서양,장소,환대, 김원경

[기독교 세계시민학교 7강. 5/10]

Why?

1.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태도

1) 본문 (창 18:1-10)(문 28-13)

1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의 문수리니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밤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잠이 못이 있어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오른쪽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잠이 깨서 달려나가 경배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조예 손해를 입었사오면 용화진대. 조 율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라 내 주 아브라함이 부르시니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용에게 모실음 이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내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창밖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겨우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죽 띠 있는 곳으로 달려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영진 쟁과 우유 와 화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내 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주여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 안에서 웃었더라

8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중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 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인도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이 마르거든 그에게 가서 소년들이 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시니라 10 우이 마르거든 성문을 향해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온배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 아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없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몸이 내게 붙여져 말 라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 가 아브라함께 보호를 받으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위하여 하노라 13 또 이르되 내 주여 내 가 당시에 오배 열거를 위하여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에도 값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2) 아브라함, 보아스, 롯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태도는 무엇인가?

낯선 이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보여주었음

3) 그들이 보인 태도로 인한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족목(10), 예수의 조상 보열에 이르는 족목(4:17)!

What?

1. 세계시민성 확장을 위한 연구5: 문화간 이해

이 세계에는 수많은 문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세계적 차원의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것이다. 각기 다른 민중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 도록 유도하여 세계시민이 가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지식과 태도를 갖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간 이해의 구체적 실천: 환대

1) 환대(Hospitality)의 정의: '반갑게 맞아 주거나 대접함'

2) 서민들의 조건으로서의 환대: 머물 자리를 내어주고 받아들이 주는 것.
 - 무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 에 사람이 된 것인가?

1)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도벳이라 하였 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PERSONAL DATA

Full Name: Heekyung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November, 26, 1981

Parent`s Names: Dongyup Kim and Eunsoon Beak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inmok High School 739th Street, Yang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2000
egiate: Sungonghoe University 320th Street, Yeondongro,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B. S.	Feb 24, 2006
Graduate: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25-21, Gwangjangro,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Feb 10, 2011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eekyung Kim

Name typed

February 28. 2024

date